

‘완도전복’ 친환경 ASC인증 세계시장 넘본다

전북어장 국제인증 세계 4번째... 日 언론 등 해외서도 높은 관심
친환경수산물 사용 의무화 추세 2020년 도쿄올림픽 특수 기대

청정바다 완도에서 생산되는 전복이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국제인증인 ASC 인증을 받으며 해외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일본의 미나토 신문(みなと新聞)에서 지난달 11일부터 3일 연속 ‘한국의 완도 전복 ASC 취득’에 관한 기사를 실었다.

완도군은 지난 8월 30일 완도 전복 ASC 인증 취득 기념식을 열고 전복에 이어 해조류, 광어 등 수산물에 대한 ASC 인증 확대를 선포했다.

그동안 ASC 인증을 받은 전복 어장은 호주(검은 입 전복)와 뉴질랜드(무지개 전복), 남아프리카 공화국(벨레몬 전복)으로 세계에서 3개 어장뿐이었는데, 완도군의 14개소 전복 양식 어가에서 값진 결실을 이뤘다.

이는 완도군과 해양수산부, (주)청산바다, 전복 양식 어가 등이 지난 2016년부터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노력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완도 전복의 ASC 인증 취득을 일본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룬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일본에서는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전복에 대해 ASC 인증을 받은 곳이 없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ASC 인증을 받은 수산물을 공급받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한 일본 정부에 이어 3개 어장 중 일본 대륙에 가장 가까운 완도군 어장의 ASC 인증 소식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특히 글로벌 호텔 체인인 하얏트 호텔이 수산물의 15% 이상을 ASC 인증 제품으로 구입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친환경 수산물 사용 추세가 늘고 있어, ASC 인증을 받은 완도 전복에 대해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생산량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전



지난 9월 11일부터 3일 연속 '한국의 완도 전복 ASC 취득'에 관해 보도한 일본 미나토 신문. <완도군 제공>

? ASC 인증
‘지속 가능한 양식관리 위원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에서 부여하는 친환경 수산물에 대한 국제 인증이다. 해양 자원의 남획과 무분별한 수산 양식으로 인한 해양 오염을 막고 지속 가능한 양식 어업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다.

의 경우 ASC 인증을 받은 곳이 없기 때문에 차별화할 수 있게 돼 수출 경쟁력까지 갖추게 됐다.

완도군은 ASC 인증이 전복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며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완도군은 ASC 인증이 전복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하며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국제적 환경에 맞춰 적극적인 판촉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면서 “전복에 이어 해조류와 광어 등 수산물에 대한 ASC 인증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조도 어린이집 ‘숙원 풀었다

군, 15인승 통학차량 전달

진도군이 조도면민의 주민숙원사업 중 하나인 조도 어린이집에 15인승 안전 통학차량을 전달했다. <사진>

9일 진도군에 따르면 어린이 전용시트, 아이들의 승하차 편의를 위한 전자동반판 등 아동안전 시스템이 사전 설치된 통학차량은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함이다.

조도어린이집은 정원 20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14명의 아동이 공부하고 있는 등 조도면의 보육 서비스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대다수의 학부모가 농·수산업에 종

사하고 있는 조도면에서는 아동의 등하원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등 주민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혔다.

군은 최신식 아동 안전 통학차량의 보급으로 조도면 주민 숙원사업 해소와 함께 학부모들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도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아동의 건강과 영양에 맞는 어린이 맞춤형 식단 등 지속적인 어린이집 모니터링을 통해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해남군은 지난 4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정책협의체와 간담회를 열고 군 청년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해남군 제공>

해남군, 고용우수기업 인증 사업 편다 일자리 창출·고용안정 기여 기업에 인증서 수여 10개사 선정...업체당 2000만원 인센티브 지원

해남군은 일자리 창출 확대와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고용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며 고용환경 개선자금으로 기업당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시설·운전자금에서 융자 한도 및 이자 지원 금리 우대를 받으며, 일자리 지원사업 등 기업 선정 시 우선 혜택을 받게 된다.

신청자격은 해남군에서 2년 이상 가동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서

비스산업 및 지역 대표산업 관련 분야 업체다.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 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50~300인의 중소기업은 5명) 이상인 기업이 해당된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이며 해남군의 서류심사를 거쳐 내달 전남도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를 거쳐 도내 10개 기업이 인증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고용 우수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체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용 확대 분위기를 확산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지역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지자체 해남군, 청년정책협의체와 간담회

해남군이 미래 지역 발전의 주역인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해남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청년정책협의체와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청년정책협의체는 ‘해남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소통과 참여를 위한 협의체로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만 18세~49세의 지역 청년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해남군의 인구 감소 추이 분석을 통해 미래의 중심에 서 있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재고하고, 정부와 전남도의 정책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군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들은 주변에서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애로사항 등 실질적인 정책 수요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군에 전달하는 한편 그동안 청년정책협의체 자체 분과회의(일자리, 문화, 농어업, 복지 분과)에서 나누었던 의견들을 모아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한 정보교류 증진 방법, 귀농인 및 농업인 육성, 육아·복지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완도군, ‘एको 푸른숲 전남 만들기’ 공모사업 선정

완도군이 2019년 ‘एको 푸른숲 전남 만들기’ 주민·단체 참여 숲 공모 사업에 2곳이 선정돼 사업비 1억7000만원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금일을 가로수 조성사업(1억원), 삼두마을 풍치숲 조성사업(7000만원) 등 총 2개소다.

마을별 개성 있는 숲 조성을 위해 금일을 가로수는 단풍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단풍길을 만들고, 삼두마을 풍치숲은 전국 최대 동백 천연림을 보유한 곳인 만큼

동백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एको 푸른숲 전남 만들기 사업은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해 주도적으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업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एको 푸른숲 전남 만들기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10곳의 숲이 조성됐다”면서 “앞으로도 주민과 협업을 통해 숲 조성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진도군 ‘농민수당’ 등 맞춤형 농민시책 큰 호응

진도군이 ‘농민수당’ 등 맞춤형 농민시책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1ha이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는 65세 이상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고 40만원의 ‘어르신 소농 직불금’을 전국 최초로 3년째 지급해 오고 있다.

현재 군은 친환경농업육성 4개년 계획 수립이후 매년 4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매년 5~6월 신청을 받아 연말에 농민수당을 지급으로 어르신 소농의 농작업 일

손 부족과 농업경영비 부담 해소와 함께 소득 안정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을 월별로 연중 지급해 소득의 안정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영농생활 지원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도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민선 7기를 맞아 농어업 예산을 40%로 확대, 편성해 농어업을 통한 인구 증가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

대원여행사와 함께 떠나는 가을단풍 여행

문의 및 접수
(062) 526-7000

- 해외여행 · 국내여행
- 할인항공권 · KTX기차표
- 허니문 · 단체여행
- 골프투어 · 기차여행

가을 전세열차 상품 ※1인 이상 출발합니다	1. 정동진일출 · 설악산단풍 기차여행 · 무박 2일	10월 26일(금)	120,000원
	2. 제천 청풍호 · 도담삼봉 기차여행 · 당일	11월 03일(토)	85,000원

정기열차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1. 문경새재(옛길) · 월악산송계계곡 단풍여행 · 당일	10월 20일, 27일, 11월 3일	95,000원
	2. 계룡산 갑사로 가는길 · 공산성 단풍여행 · 당일	10월 6일, 13일, 20일, 27일, 11월 3일	75,000원
	3. 남이섬 자유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110,000원
	4. 남해 보리암 · 독일마을 기차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6인부터 매일출발	67,000원
	5. 서천 국립생태원 기차여행 · 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39,000원

섬여행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1. 홍도 · 흑산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인부터 매일출발	218,000원~
	2. 울릉도 · 독도 여행 · 2박 3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330,000원~
	3. 거문도 · 백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00,000원~
	4. 백령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10인부터 매일출발	285,000원~
	5. 대마도 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8인부터 매일출발	270,000원~

버스여행 상품 ※최소 출발인원 확인하세요	1. 인제 자작나무숲&곰배령 트레킹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80,000원~
	2. 울산 동해미행 버스여행 · 1박 2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150,000원
	3. 고령 고분군 트레킹 · 당일	최소출발인원 : 15인부터 매일출발	25,000원
	4. 통영 동피랑 마을 · 당일	최소출발인원 : 20인부터 매일출발	70,000원

(주)대원여행사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76 자승빌딩 1층(현대자동차빌딩 옆) ※ 자세한 사항은 대원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세요. www.daewontour.com